"지리산에 산악열차·케이블카 놓자" 5개 시·군 개발 추진 논란

구례·함양·산청 '케이블카' 남원·하동 '산악열차' 진행 지역민 "환영"… 환경단체 반발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 개발 붐이 일고 있다. 지리산이 품고 있는 5개 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개발 사업을 속속 추진하면서 난개발과 생태계 파괴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7일 지리산국립공원이 속한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구례군 등 5개 시·군은 각각 지리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동군은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남원시는 산악 전기열차 사업을, 구례군와 함양·산청군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내놓았다.

하동군은 총사업비 1650억원을 투입해 화계·악양·청암면 3개 면을 잇는 15㎞의 산악열차와 5.8㎞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6일 336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앞서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을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로 선정, 힘을 실어줬다.

남원시는 오는 2029년까지 1787억원을 투입해 주천면 육모정에서 노고단 성삼재를 경유해 구례 천은사까지 34㎞에 이르는 '지리산 산악전기열차'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돼 9억6000만원의 용역비가 확보된 상태다.

남원시는 본 사업에 앞서 육모정~정령치 구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함양군과 산청군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각각 추진하다가 지난 2015년 경남도의 상생 방안 중재로 공동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함양 백무동에서 장터목산장을 경유해 산청 중산리까지 9.3㎞(함양 4.6㎞, 산청 5.3㎞)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6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 현재는 소강 상태다.

하지만, 산청군은 금서면의 동의보감촌에서 인근 '왕산'(해발 925.6m)까지 1.87㎞ 구간에 250억원을 들인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구례군도 30여년 동안 줄기차게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례군은 산동면 지리산온천지구에서 지리산 서쪽 최고 전망지인 노고단 맞은편 종석대(해발 1361m)까지 3.1㎞(국립공원 내 1.2㎞, 밖 1.9㎞) 구간에 416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까지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내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군은 옛 지방도 861호선인 노고단도로가 구례군도로 변경됨에 따라 대기오염과 소음, 로드킬을 막기 위해 이 도로의 자동차운행을 제한하고, 대체 교통수단으로 케이블카 설치한다는 전략이다.

지리산 관광개발 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구체화되자 해당 지역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반기고 있다. 민·관은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숙원사업으로 힘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무소속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함양·산청·거창·합천)은 "지리산 케이블카와 영·호남을 잇는 산악열차를 동시에 추진하면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각 지자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27일 우원식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추진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등은 성명을 통해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백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반대 여론에는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종교·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다른 지자체의 지리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국립공원 생태 훼손'을 이유로 반대할 것으로 알려져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환경부는 지난 2012년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한 단일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리산 케이블카 설차 사업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맛의 도시' 순천, 최고의 맛집은?

'순천미식대첩' 26곳 선정 순천한상 11곳·고수맛집 15곳

순천미식대첩 순천한상 부문 대상 '명궁관'.

순천시는 맛집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지난 9~11월 '순천미식대첩'을 진행해 순천 최고의 맛집으로 명궁관 등 26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 맞은 순천미식대첩에서는 순천 식재료를 사용하는 한식(한정식) 판매 음식점 '순천한상' 11곳과 숨어있는 고수들이 운영하는 맛집 '고수맛집' 15곳 등 2개 부문 26곳을 뽑았다.

올해 경연은 코로나19로 현장 라이브 경연 대신 전문가 현장평가와 시민, 관광객 선호도 평가로 선정했다.

'순천한상' 맛집 부문은 ▲대상 명궁관 ▲최우수상 남녘들밥상 ▲우수상 수련산방 ▲특별상 참조은시골집과 대원식당이다. 낙원회관, 만복가든, 순천만 라비스타도원경, 순천만 전라도밥상, 연우당, 형제간 등은 입선했다.

'고수맛집' 부문은 ▲대상 향토정 ▲최우수상 거목순대국밥 ▲우수상 다락육전 ▲특별상 다락카레 호수공원점과 용팔이가 수상했다. 건봉국밥, 골목식당, 나눌터, 남도순수, 성지농원, 순천갈대장어, 통뼈연가, 풀뿌리순두부순천점, 화돌농장, 해반 등은 입선했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순천 최고의 맛집을 선정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정식, 닭구이, 탕·전골요리, 가정식백반, 예쁘고 아름다운 음식점 등 5개 부문 50개 음식점을 선정한 바 있다.

'순천미식대첩'에서 선정된 고수맛집(왼쪽)과 순천한상 부문 수상자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이 '맛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맛은 물론이고 위생과 경영, 친절 마인드 등을 함양해 달라"며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미식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음식점 경영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2대 도입

중마동 1000·1001번 노선 운행……내년 10대 배치

광양시는 중마동 지역순환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6대 가운데 2대를 친환경 전기시내버스로 교체, 운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운행은 전남에서는 나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대중교통의 전기버스 도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버스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요소를 줄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4kW/h의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으로 최대 212㎞를 운행할 수 있다. 기존 1000번과 1001번 노선에 투입된다.

친환경 전기시내버스는 국비·도비·시비와 운수회사 자부담을 통해 도입되며, 광양시는 내년까지 총 10대를 시내버스 노선 운행에 배치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친환경 전기시내버스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비용을 절감해 운수회사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아이돌봄 서비스'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곡성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22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추진한 사업 성과, 서비스 제공 실적, 아이돌보미 활동 등 4개 영역 12개 지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곡성군은 모든 영역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민선 7기 곡성군은 '일과 가정 양립지원 확대'라는 공약을 내걸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시행 중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질 높은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양육의 균형을 이루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